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 미 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3기 한국문화예술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자마자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최상윤 부산예총 회장이다.

위원 명단에는 전남대 이무용 교수 등 지역 인사 3명이 포진해 있었다. 2기 위원회 '지역 뭉치'가 최 회장 한명이었던 데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이같은 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바로 최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2년여 동안 문화예술평가의 중앙 집중 문제를 제기했고, 해결 방안으로 예산 배분에 참여하는 지역위원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광주도 '김동호 위원장' 필요

지난해 울산에서 최 회장을 대면한 필자 역시 그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차례 기사를 썼었다. 지난 8월 광주에서 열린 한국예총 대표자 회의에서 만난 최 회장은 임기말을 앞두고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작심한 듯했다.

최 회장은 직접 자료를 배포하고, 성명서를 작성해 지역 예총연합회 이름으로

발표했다. 한마디로 '고군분투'였다. 소지 역주의에 빠지지 않고 지역문화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모습, 특히 정부를 상대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지고 항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최 회장을 보며 떠오른 건 지역예술인

문화관, 두 명의 '부산 남자'

들이었다. 지역에서 문화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예술인을 만나는 쉽지 않다. 대신 호가호위하며 명예를 누리고 개인 영달을 위해 자기 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많다. 조금 트인 경우래야 자신이 속한 단체나 장르를 챙기는 정도라고나 할까.

광주시에 '임바른 소리'를 하는 이도 별로 없다.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모습들이다. 대신 시장이나 고위층과 줄을 대 사업을 따가나 제 앞가림하기 바쁜 사람들은 많다.

최근 지역 문화관의 인사 태풍을 지켜

보면서 또 한명의 '부산 남자'가 떠올랐다. 부산영화제를 아시아 대표 문화상품으로 키워낸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다. 15년 동안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며 부산시와 영화계 후배들의 만류를 뒤로 하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요즘 시대에 최고의 자리에서 이처럼 멋지게 떠나는 경우가 어디 흔한가.

지금 광주 문화계는 김 위원장처럼 능력 있고 근사한 수장을 뽑아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내년 출범 예정인 광주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사무처장 선임이 관심사다. 벌써 대표이사로 몇몇 인사들이 언급

되는 모양인데 난감한 이름들이 들려온다.

광주시립미술관장 임명을 둘러싸고도 말이 많았다. 강운태 시장의 의중이라는 전제하에, 특정한 내정설이 구체적으로 떠올랐다. 미술관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시로서는 역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견 분명 문제가 있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구자범 지휘자의 연임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구 지휘자 취임 후 시향이 시민들에게 성류 다가선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시향이 클래식 팬들의 관심을 받은

적도 없었고, 시민들이 시립예술단체장의 '연임' 여부에 이처럼 촉각을 세우는 경우도 없었다. 그밖에 올해 임기만료 예정인 시립국극단장, 무용단장, 국악관현악단장 진로도 마무리해야 한다.

강운태 시장의 결단 중요

광주 문화관에 필요한 건 새바람이다. 이번엔 미풍이 아니라, 태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제 바람 심기', '그 밤의 그 나뭇'은 사절이다.

특히 신생 조직인 문화재단의 경우 능력 있는 명망가와 스타급 인사 영입에 공들일 필요가 있다. 적임자 논란 등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김문수 지사가 탤런트 조재현을 경기도문화전당 이사장에, 김태호 전 지사가 씨름선수 이만기를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를 한변쯤은 새겨볼 만하다.

이런 가운데 9일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난 미술관장과 관련, 시가 연봉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거물급 인사 영입에 나선 건 의미있는 행보다.

강운태 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 문화 마인드가 높다고 인식돼 있다. 강 시장의 '진짜' 문화 마인드는 이번 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계속해도 될지, 아니면 그 기대를 접어야 할 지.

강 시장의 결단과 해안이 필요할 때다. <문화생활부장> mekim@kwangju.co.kr

시설

G20 서울회의 '코리아' 도약 계기 되기를

서울 G20 정상회의가 8일 회원국 제무차관들이 모여 12일 폐막과 함께 발표된 '서울 선언' 초안 검토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막이 올랐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우리에게 '코리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다. G20 서울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도록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는 11월 120여 명에 달하는 세계적 기업인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이어 12일 세계 25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4일 동안 세계의 이목은 서울에 집중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서울회의는 세계경제의 초미의 관심사인 환율안정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금융안전망 구축, 개도국 개발지원 등 중요한 의제를 놓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리다. 다

른 나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나 어떤 국제회의보다 비중이 큰 행사인 셈이다. 더욱이 서울회의의 성공 개최 여부는 의정국인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역량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코리아 아니티티브'의 성격까지 띠고 있어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

하지만 낙관만 하기에는 이르다. 최대 현안인 환율문제가 미국 금융당국의 양적완화 조치라는 돌발 상황으로 인해 애초 예상됐던 환율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합의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의 관심이 환율 안정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모아 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과 함께 회원국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으로 절실한 요구를 물면된다. 서울회의가 우리의 국격(國格)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형마트 지역자금 유출 두고만 볼 건가

소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대기업이 만든 대형마트나 SSM이 시장을 장악하여 동네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상가를 문 닫게 하더니 이제는 편방으로 SSM 가맹점까지 만들어 골목상권까지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대형마트와 SSM의 수가 인구 대비 전국 최고치라고 한다. 10월 말 현재 광주에는 대형마트 14개, SSM 16개로 인구 4만7000여 명당 1개 꼴로 이미 포화상태다. 광주가 타지역에 비해 대형유통업체가 얼마나 많이 진출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45% 이상 급감하고 1000여 개의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30%를 넘어선 상태에서 소규모 상권이 몰락해 실업문제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 자금의 블랙홀현상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1조6873억원으로 5년 사이 4275억원이 늘어나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증가액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연간 지자체에 낸 지방세는 롯데쇼핑 및 롯데마트 31억원, 신세계 이마트 46억원, 삼성테스코의 2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치권이 10일과 25일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대형마트 등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조처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 일부 대기업이 우회 입점, 가맹점 등 형태로 개점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차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형마트 역시 이윤만을 추구하며 사회적 윤리와 지역 환원 등에 인색한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제논리만 따질 일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 경제에도 관심을 두라는 얘기다.

기고

안기석



'가이오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기부는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부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역설이다. 가이오의 17세기 영국작가 존 번언의 소설 '천로역정'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 소설 속에서 한 순례자가 여관 주인 가이오에게 '더 많이 베풀수록 더 가지게 되는 건 누구일까요?'라고 묻는다. 가이오는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존만큼, 아니 그 열 배는 더 갖게 될 겁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역설에서 보듯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기부는 나쁜 것 이상의 소득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기부는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주는 사람에게 더 큰 기

면에서 OECD 국가와 경쟁을 하며 선진국과 견줄만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분야 중 하나는 그 나라의 성숙한 시민사회를 가늠할 수 있는 것대인 '기부 분야'이다.

영국 자선구호재단(CAF)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9월에 발표한 2010년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53개국 중 81위를 차지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기부액(2006~2007년 기준)이 미국 113만원, 캐나다 35만원, 영국 34만원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1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근래 기부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직 선진국

나눔의 행복, 기부

쁨과 행복을 선물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부란 무엇일까?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열려해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기부이다. 기부는 특정계층이나 특정시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뿌리박혀 있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다. 또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마음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오며,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누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만약 거기에 재산까지 모았더라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덕택에 덤으로 얻은 것이다. 이러한 덤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선진화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경제, 사회, 교육 등 다방

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문화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며 일상적이고 습관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금년도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이 되면 출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가장 힘들 때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시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기부는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빛이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를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축진제가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 '가진'은 만족감'보다 '나누는 행복감'이 더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부라는 나눔의 바이러스가 우리지역을 넘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

<광주시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장>

구치소 수용자 가족 현혹하는 브로커 철저 단속해야

지난 주말 친구 부모님과 함께 친구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로 면회를 갔다.

면회를 마치고 구치소를 나서는데 양복입은 남자가 다가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와 잘 통하는 변호사를 연결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출소시킬 수 있다고 말을 걸었다.

순간 마음속으로 "이런 게 바로 브로커구나"하는 생각하며 무시했다. 하지만 친구 어머니는 그 남자들의 말에 속았해 했다. 바

닷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최근 이 같은 브로커들이 각종 감언이설로 구치소 수용자 가족들을 현혹해 사례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절박한 구치소 수용자 가족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나섰으면 한다.

▲오우영·광주시 북구 우암동



박홍근



건축설계뿐 아니라 실생활의 여타 디자인에 앞서 내가 음미하는 구절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 있는 다음 글이다.

“찰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되 거기가 비어 있어서 그릇이 쓸모가 있다. 문을 내고 창을 뚫어 방을 만들되 거기가 비어 있어서 방은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로움의 바탕이 되고, 없음은 쓸모의 바탕이 된다.”

즉 '있음(有)'은 '이로움의 바탕'이요, '없음(無)'은 '쓸모의 바탕'이다. '있음'은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없음'은 빈 곳, 즉 이용하려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난 이 두 가지 '형태와 비움'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디자인이요, 진정한 디자

왜냐하면 이번 주제가 "디자인이라 칭하는 것이 다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뜻의 '도가도 비상도(圖可圖 非常圖, Design is design is not design)'이기 때문이다. '도가도 비상도'는 도덕경 첫 장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 '명가명 비상명(名可名 非常名)', 즉 "도라고 칭하는 것이 다 도가 아니다, 이름이 있다고 해서 다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의 첫 구절에서 '길 도(道)'를 디자인을 뜻하는 '그림 도(圖)'로 바꾼 것이다.

이와 같은 "디자인이라 칭하는 것이 다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구절의 공동 책임자인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명제가 되기 때문이다.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인 효상상 건

디자인이라고 다 디자인은 아니다

인이라 생각한다.

광주의 쇠락하는 옛 도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어지고, 공공디자인은 가로변과 재래시장까지 스며들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는 여전히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무채색의 도시처럼 보인다.

경관을 가로막는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 숲, 무질서하게 만들어진 가로시설물, 무표정하고 불편한 빌딩들... 이런 광주 도시경관의 난맥상은 디자인이라는 문제의 야이다. 함께 참여한 개발업자, 관공서, 세입자, 건축주, 이용자 등 모두의 문제로 우리는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광주는 예술과 디자인에 걸쳐 많은 자산과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2011년 제4회 디자인비엔날레를 기점으로 광주의 정체성을 찾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건축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평상'을 수여 합니다. 은평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평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無 等 鼓

“... 나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어/ 하지만 그들은 별 쓸모가 없네/ 나의 몸값은 치러지지 않고 있네/ 두 번의 겨울이 지나도록 나를 계속 감옥에 놔둔 그대들, 부끄러워하리라/ 나의 부하들과 잉글랜드, 노르망디, 프와투, 가스코뉴에서 온 봉신(封臣)들/ 그들은 내가 먼 친구조차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질책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네/ ...여전히 나는 죄수로 남아 있네.”

십자군 전쟁으로 유명한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가 12세기에 지은 노래 'Ja nus honns pris(수감된 사람은 누구라도)'의 가사 중 일부다. 리처드가 제3차 십자군 전쟁에 참가한 후 귀국하던 1192년 12월 어느 날 자신과 견원지간인 신성로마제국의 레오폴트 공작에게 붙잡힌 뒤 장기간 독일의 성곽에 갇혀 있을 때 지어진 것이다.

이 노래에는 명색이 일국의 왕이면서도, 몸값을 치르지 못해 2년 가까이 포로로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과

자신의 석방을 위해 서둘러 몸값을 마련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드러나 있다. 리처드는 어머니 엘레오노르가 앞장서 모금한 돈 35만, 당시 돈으로 15만 마르크에 이르는 막대한 몸값을 지불하고서야 감옥에서 풀려났다.

지난 4월 초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원유 운반선 삼호드림호가 217일 만에 석방됐다. 해적들은 배에 타고 있던 한국

몸값



인 5명과 필리핀인 19명 등 24명의 석방 대가로 2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해 왔으며,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낸 배를 폭파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승무원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자왕 리처드처럼, 삼호드림호 승무원들에 참가한 후 귀국하던 1192년 12월 어느 날 자신과 견원지간인 신성로마제국의 레오폴트 공작에게 붙잡힌 뒤 장기간 독일의 성곽에 갇혀 있을 때 지어진 것이다. 이 노래에는 명색이 일국의 왕이면서도, 몸값을 치르지 못해 2년 가까이 포로로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結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문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